

## 讀書의 沮害要因

李 御 寧

(中央日報 論說委員)

「앙드레·모로아」는 말하기를 先進國에서는 讀書의 傾向이 漸漸 減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理由로는 旅行할때 冊을 가지고 다니는데 近來에는 自動車를 利用하기 때문에 讀書의 機會가 없다고 論述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한가로운 時間에 讀書을 하게 되는데 TV라든지 나이트 클럽등 現實的인 快樂을 주는 傾向이 漸次로 冊의 즐거움보다도 強力히 作用하기 때문에 옛날에 比해 讀書의 機會를 많이 剝奪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先進國의 境遇를 말하는 것이지 現韓國實情에 自家用을 利用하는 사람이 몇이나되며 生을 즐길수있고 젊음을 發散할수 있는 環境과 條件이 몇이나되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讀書을 沮害하는 要素를 든다면 첫째로 우리나라에서는 讀書가 傳統的으로 生活化되지 않았다는것을 들 수있다. 古人들은 「燈火可親」이니 「晝耕夜讀」이니 「螢雪之功」이니 하여 困境한 가운데서도 冊을 즐겨읽었다는 아름다운 傳說이 있다.

讀書은 冊을 읽어서 그것을 어디다 쓰자는 功利的인 것이 아니고 讀書은 하나의 趣味의 向上이요 教養의 開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讀書하는것은 어떤 出世의 手段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讀書은 그 自體가 讀書로 끝나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읽는다는 것과 工夫하는것을 混同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어떤 教養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自己自身の 精神的인 糧食을 높이기 위해서 읽는다는것은 近代以後의 생각이고 옛날에는 大部分이 科擧하기 爲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또는 한 선비의 專攻科目으로써 책을 읽었던 것이다.

讀書은 우리의 生活周邊에서 自然的으로 또는 高尚한 趣味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問題를 풀기 爲해서 또는 試驗에 合格하기 爲해서 책을 읽는것은 根本的으로 止揚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日常的인 生活이 책을 읽을 만한 「스테미나」即 「貯蓄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스테미나」는 體力이 問題인데 우리들의 複雜한 生活과 시달림은

책을 대하기전에 우선 「단발구론산」이나 「박카스」를 찾게 마련이며 「讀書週間」이니 「天高馬肥」의 季節이라고들 하지만 이 「스테미나」가 없는 境遇에는 萬事が 귀찮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책을 읽을수 있는 抵抗力이 생겨날수 있겠는가 먼저 책을 읽으라고 권하기전에 책을 읽을수 있는 精神的인 餘有와 「스테미나」가 必要한 것이다.

셋째 要素로는 우리나라의 社會現狀은 教養이 理想의 尺度로 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야비한것이 理想의 尺度로 되어 있기 때문에 極히 책의 效用性이 없다고 본다. 教養의 深度가 높은 사람일수록 待接을 받는 社會 또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人間 구실을 하는 社會가 되어야만 讀書은 우리生活 周邊을 떠나지않고 우리와 같이 生活하게 될것이다.

美國에서는 讀書하는 習慣을 기르기 爲해 1947年「名作 읽기를 권장하는 회의」를 마을에 두고 누구든지 이 모임에 參加하도록 하는 反面 자주 討論하는 모임을 갖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討論場所」라면 「雜談」을 하는 場所로 여기고 있으며 사실상 對話의 訓練도 되어 있지 않은 形便이다.

참된 讀書가 한 教養人의 生活로서 옮겨지기 爲해서는 서로 한자리에 모여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마련되어야하며 「討論場所」를 통한 讀書法이 必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讀書은 具體的인 生活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며 그 讀書은 또다시 生活로 還元될수 있는 어떤 「서큐레이션」을 前題로 해야한다. 書齋속에서만 파묻혀 있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現實의 生活을 理解하지 못하였던 「파우스트」는 바보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雜多한 現實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파우스트」의 書齋로 끌고 들어가는 作業이 必要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너무도 現實과 外面한 人文主義的인 思考 萬能의 時代에 있어서 行動力은 減退되고 現實感覺은 없어지고 책에서만 活字에서만 호흡하려고 하는 人

(14면에 繼續)

自體에 汲汲하면서 책장을 넘긴다면 그 價値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作家는 分明히 그 作品 속에 한 사람의 새로운 人間型을 創造해 놓았을 것이다. 새로운 人間の 典型, 그것을 發見하지 않고는 그 作品을 다 “읽었다”고 自信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多讀과 精讀이 問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인 것 같다. 多讀을 要할 때는 多讀을 하고 精讀을 要할 때는 精讀을 하면 되는 것인데 學生들이 종종 이 問題를 가지고 意見을 묻는다. 그러나 筆者는 高等學校의 圖書館을 맡고 있는 關係로 學生들에게 可及의 多讀을 勸하고 있다. 왜냐 하면 讀書할 수 있는 가장 旺盛期가 20세 前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多讀은 얼른 생각하면 깊이있는 讀書이기 때문에 읽을 그때뿐 머리에 오래 남는 것이 없다는 短點을 指摘받기도 하나, 우선은 머리에 남아 있지 않아도 수많은 책을 多讀하고 나면 먼 뒷날 언젠가는 自然히 한 人間の 人格으로 形成되어 나타나고, 장차 어느 學問으로 떨어 나가든 그 學問의 든든한 基盤이 되어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多讀의 必要性을 力說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專門分野의 讀書는 두말할 나위없이 精讀主義를 擇해야 하겠지만 多讀은 人生全般에 걸쳐 鳥瞰의인 影響이 미치는 것이므로 身體的으로 피로에 걸리어 낼 수

있는 青年期의 多讀은 꼭 必要하리라 생각한다.

〈司書教師와 讀書〉라는 命題을 받아 글을 쓰긴 했으나 아무래도 系統이 흐린 글이 되고 말았다. 筆力이 鈍한 탓이리라. 그러나 이 글을 쓰고 나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司書教師의 職務가 다른 어느 分掌의 教師보다 어렵고 무겁다는 點이다. 거기다가 괴로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同僚들은 마치 時計바늘을 눈으로 떠받쳐 올리다 싶이하여 다섯 시간 되면 퇴근해 버린다. 圖書館 事務室 창녀머로 내다보이는 그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부럽다. 그러나 司書教師는 하루네 시간의 수업으로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다시 閉館 時間인 7時까지 圖書館을 찾아온 學生들에게 提供하지 않으면 안 된다. 奉仕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司書教師가 되어야 한다고 訓練은 받았지만 저렇게 모두 훌륭히 退勤하는 뒷모습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괴롭다.

그러나 한 줄의 글이라도 더 읽겠다고 열람실을 꺾매운 學生들의 모습으로 눈을 돌리면 괴롭던 마음은 한결 호젓해진다. 거기에 남모를 唯一한 즐거움이 있어서일까?

가을은 해만 저면 스프르 氣溫이 내려가는 季節이다. 밤 7時, 圖書館 문을 잠그고 校門을 나서면 날씨는 싸늘하고 하늘엔 별들이 총총거린다. 무겁고 괴로한 발걸음을 이 遲刻인 歸路에 옮겨 놓으며 司書教師만이 느끼는 가냘픈 즐거움을 느껴 보는 것이다.

(5面에서 繼續)

文主義時代의 惡習을 結局은 「매피스트·파우스트」가 救濟해준것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겨우로 너무나 現實的이고 너무나 政利的인 現實에 있어서는 한번 아늑한 「파우스트」의 書齋속으로 들어가는것이 生을 한층 더 보람있게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結局 책으로 대변되는 思索의 世界와 直接 金力으로써 尙징되는 現實의 世界는 어느쪽이 더 有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精神的인 것도 重要하지만 物質的인 直接 筋肉이 움직이는 뜨거운 피가되는 現實도 重要한 것이다. 어느쪽을 버리고 어느쪽을 擇하느냐고는 말할

수 없다. 두개가 다 필요한 것이다.

「앙드레·저드」처럼 行動主義의 思想을 爽爽하게 할때에 「너의 冊들을 불살라게 하고 江의 모래가 아름답다고만 읽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直接바로 느껴라」고 하던 그 時代와는 反對의 口號로써 너무나도 感覺과 一致되어버린 官能萬能의 時代에 있어서는 한번 조용히 自己를 생각할수 있고 生의 열매를 맺을수 있게하는 파우스트」의 그 음침한 書齋가 우리들에게는 必要한 것이다. (이 글은 第11回 讀書週間을 맞아 지난 9月 25日 南甲市立圖書館에서 開催한 讀書세미나에서 發表한 것을 간추린 것임)

廣 告

韓國圖書館關係文獻目錄 (1921—1961) 高厚錫·洪淳英 編

韓國雜誌目錄 (1896—1945) 崔筍子 編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發行  
(208p 菊版 洋裝 更紙 裝 350원)

이 目錄은 梨花女大圖書館學科 大學院 卒業生들에 依하여 編輯된것으로 解放前後 40年間 여러곳에 散在한 定期刊行物 記事中 圖書館關係文獻을 蒐集目錄化하였고 解放前 50年間의 韓國에서 發刊된 雜誌의 目錄을 收錄한 것이다.  
(販賣處 梨大圖書館)